

경쟁사 정보 관리



이 윤리강령은 직원들과 Unilever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고 경쟁사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Unilever는 경쟁사, 공급업체 그리고 소비자 및 고객을 포함한 제3자의 기밀 정보를 존중합니다. 기밀 정보는 다른 회사에 관한 것으로 공공 영역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상업적인 가치를 가진 정보를 말합니다.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경쟁법 또는 영업비밀/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Unilever와 개인에 대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Unilever는 신문기사, 인터넷, 회사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이 공공 영역에 공개된 경쟁사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정보들은 Unilever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목적과, 목적주도형 미래형 기업으로 거듭나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직원은 반드시:

- 공공 영역에 공개되어 있는 경쟁사의 정보만을 사용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가 합법적인 자료 및 문서라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경쟁사 정보 취득에 대한 최신 정책 및 지침을 항상 인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합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합니다.
- 의도치 않게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습득한 경우, 법률 자문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직원은 절대:

- 새로운 직원 혹은 타인을 통해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사 정보는 마케팅, 재무 정보에서 2D, 3D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을 직면하였다면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